



안녕하세요? 조희정 수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언니, 남동생과 항구도시인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느님의 작품인 바다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세례와 첫영성체를 하였는데 세례를 수학여행을 다녀온 날이라 피곤하여 잠을 자느라 세례식에 늦어 허둥지둥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영성체 때 기도한 두 가지 소원! '우리 가족이 성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수녀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서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취업을 준비했는데 세상의 어떤 것에도 하느님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는 마음속의 울림이 계속 퍼져 나왔습니다. 본당 수도회 성소 모임에서 순수하고 맑은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Oh, YES!!"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느 가을 강진 여행을 하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씨튼 수녀님을 보고 강진 성당에서 만난 수녀님과의 인연으로 수도회에 1996년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학운동성당, 청호동 성당, 신봉동 성당, 신흥 성당에서 본당 수녀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믿고 세상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신자분들을 만났습니다.



2006년 종신서원 후 강진 성요셉여고에서 3년간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소박하고 순수한 학생들을 만나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미사 성가 연습을 하며 하느님을 외치는 함성과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메리 앤 윈터스 수녀님, 매리언 조셉 수녀님과의 만남도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미국 관구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온 시간은 축복이었습니다.

2014년 부천 소명여자중학교에서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냈습니다.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매일 마주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기쁨과 열정을 경험하며 하느님 나라의 선물을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신 선물로 여겨집니다.

2022년 바다 위에 떠 있는 150개의 섬을 가진 통영 북신동 성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는 이곳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선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발견하며 저에게 주어진 그분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Hello, I'm Sister Jo, Hui Jeong. I was born and raised in Busan, Korea a port city, with an older sister and younger brother. I love the ocean, which I think is a masterpiece of God. The day I received the sacrament of baptism and first communion when I was in grade six of elementary school was right after we went on a field trip for several days. I overslept and I was almost late for the liturgy. On that day, receiving my first communion, I made two wishes! "Please make our family a holy family!" And "let me be a religi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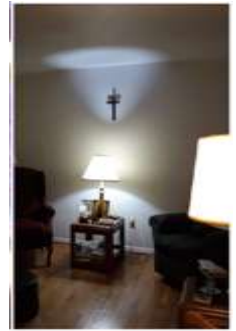
sister!" God heard my two wishes.

When I was a junior at college, I was looking for a job while searching for a meaningful life, and the assurance that there is nothing but God came most resounding in my heart. Participating in a vocation meeting in the parish and encountering our joyful and innocent sisters, I shouted, "Oh, YES!!" in my heart.

One autumn day, traveling in Gangjin, I saw a sister riding a bike passing by, and I began to contact our community and finally entered in 1996.



Ministering in the parishes such as Hakun-dong, Cheongho-dong, Shinbong-dong, and Shinpoong-dong as a parish sister, I could encounter various parishioners who believe in God and live their faith in the world. After perpetual vows in 2006, I taught philosophy for three years at St. Joseph High School. I felt lots of joy and satisfaction when I met and taught innocent and simple students there. Especially during choir practice time, listening to their thunder-like voice made me encounter a living God. Sisters Mary Ann Winters and Marian Joseph Adams were



very special to me, and the time I spent with our USA sisters was a blessing and an unforgettable memory.

In 2014 I was a Home Economics teacher at Somyong Girls' Middle School, and there I could encounter the passion of each student expressed with her body language every day. I could appreciate each of them as a unique and precious one with potential. Experiencing the joy and passion of teaching someone, I recognize that is the gift of the Kingdom of God endowed to me from God.



Since 2022 I have been living in Bukshin-dong parish in Tongyoung-si, surrounded by one hundred fifty islands. In this quiet place, where I can see the tranquil ocean like a lake every day, I walk His time given to me with humility, finding all the little and big gifts God had prepared for me.

